

고난도 국어 문법 모의고사

문법백제

P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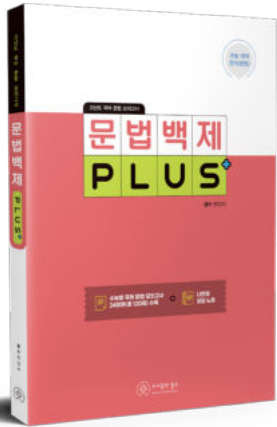


수능형 국어 문법 모의고사
24회분(총 120제)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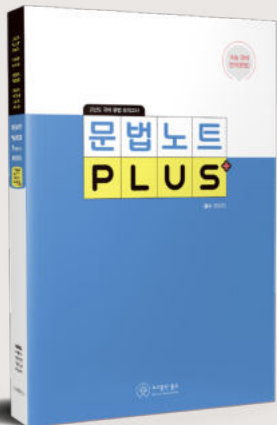
문법노트
PLUS

문법백제 PLUS 구성과 특징



본책 문법백제 PLUS

“문법백제 PLUS는
수능 국어 문법(언어) 문제를
출제자의 시선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 지식과 최적의 문제 풀이
학습법을 제시합니다.”



별책 문법노트 PLUS

'문법백제 PLUS' 교재 활용법

1 교재 활용법

새로운 수능 국어 문법(언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법(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법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수능 국어 문법(언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문법(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법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책은 수능 국어 문법(언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문법(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법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책은 수능 국어 문법(언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문법(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법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책은 수능 국어 문법(언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문법(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법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책은 수능 국어 문법(언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문법(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법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새롭게 바뀐 수능 국어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의 언어(문법)를 대비하기 위해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수능 국어 문법을 비롯한 각종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국어 문법을 '재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올바른 학습법을 제시합니다.

문법 개념 PLUS

4 문법 개념 PLUS

이 책은 수능 국어 문법(언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문법(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법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책은 수능 국어 문법(언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문법(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법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책은 수능 국어 문법(언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문법(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법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책은 수능 국어 문법(언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문법(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법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책은 수능 국어 문법(언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문법(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법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책은 수능 국어 문법(언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문법(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법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회차별 모의고사 뒤에 있는 '문법 개념 PLUS'를 스스로 만들어 봅니다. 각 문항에서 사용된 문법 개념이나 이론을 개념서나 기출 문제의 지문, 선지 등에서 발췌한 표현을 활용하여 정리하세요. 단순한 문제 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쓰인 모든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법 핵심 정리

5 문법 핵심 정리

이 책은 수능 국어 문법(언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문법(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법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책은 수능 국어 문법(언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문법(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법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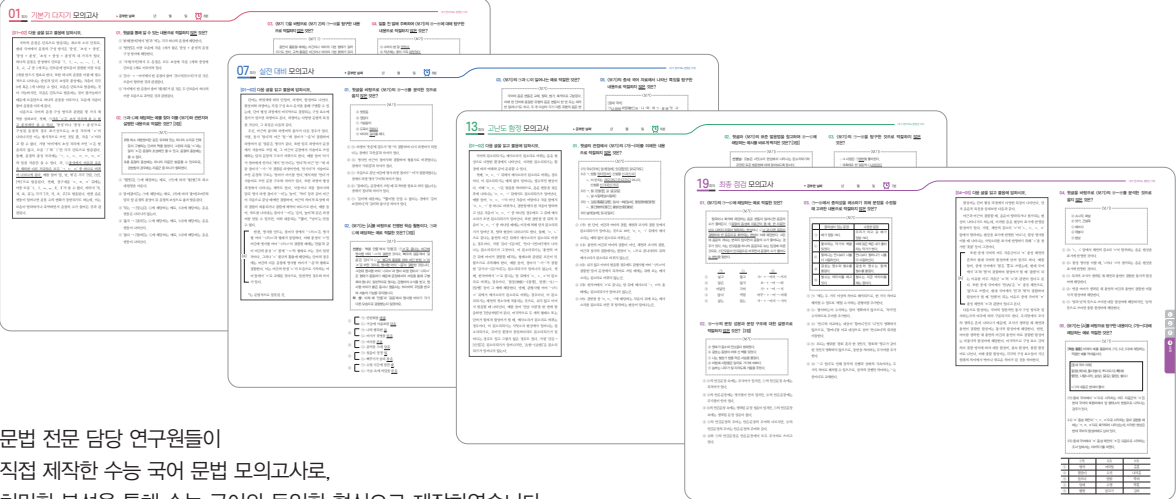
이 책은 수능 국어 문법(언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문법(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법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책은 수능 국어 문법(언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문법(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법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책은 수능 국어 문법(언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문법(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법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책은 수능 국어 문법(언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문법(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법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4주간의 모의고사 문제 풀이와 '문법 개념 PLUS' 정리를 마쳤다면 이제 '문법노트 PLUS' 차례입니다. 수능 국어 문법의 필수 개념과 이론을 정리한 단원별 문법 핵심 정리를 보면서 문법의 체계를 잡으며 복습합니다.

문법 모의고사 총 24회 (총 120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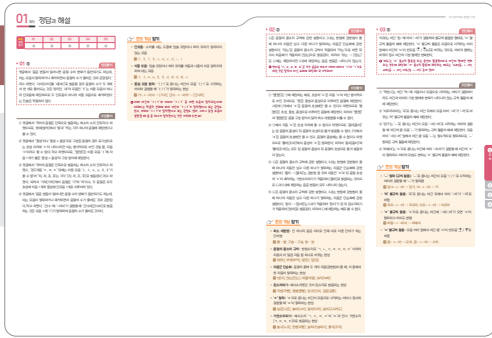
2



문법 전문 담당 연구원들이 직접 제작한 수능 국어 문법 모의고사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수능 국어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LEVEL이 높아질수록 함정 요소가 많고 더욱 심화된 개념과 이론을 활용하여 만든 문제가 제공됩니다.

정답과 해설 & 문법 개념 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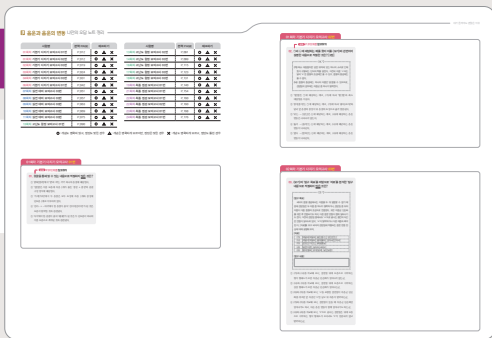
3



지문, 보기, 발문, 선지 등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법 개념들은 각 문항의 해설 아래에 있는 '문법 개념 담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문법 지식과 문제 풀이 TIP도 제공하였습니다.

나만의 오답 노트

6



문법 모의고사 24회의 모든 문제는 '문법노트 PLUS'에 단원별로 재분류하여 다시 한 번 실어 두었습니다. **분책** '문법백제 PLUS'를 펼치고 **별책** '문법노트 PLUS'에 단원별로 정리된 '나만의 오답 노트'에 틀렸거나 확신 없이 푼 문제를 체크한 후 정리해 보세요.

교재 활용법



새롭게 바뀐 수능 국어의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에서 국어 문법(언어)이 나오는데, 수많은 문법 개념과 이론에 대한 공부가 부담스러워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망설여져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먼저 학습량이 많은 국어 문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암기해야 할 요소가 많아서 문법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을 테지만, 문법은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 즉 시험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오히려 수능 국어에서 고득점을 획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목의 특성상 문법 개념과 이론을 먼저 학습하지 않은 채 문제 풀이부터 접근하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아요.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어 문법 개념서로 문법의 기본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해요. 문법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먼저 익히고 각 문법 개념과 이론이 전체 체계 속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며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념서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문법백제 PLUS'를 시작하기 전에 국어 문법 필수 개념서로 국어 문법의 기초를 다지는 것을 추천할게요.^^



완벽한 수능 국어 문법

학습 로드맵



반복하기

목차 & 학습 계획

1

주차

LEVEL 1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요일	회차	본책 페이지	학습 체크		
			1st	2nd	3rd
월	01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P.012			
화	02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P.018			
수	03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P.024			
목	04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P.030			
금	05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P.036			
토	06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P.042			

2

주차

LEVEL 2
실전 대비
모의고사

요일	회차	본책 페이지	학습 체크		
			1st	2nd	3rd
월	07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P.050			
화	08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P.056			
수	09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P.062			
목	10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P.068			
금	11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P.074			
토	12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P.082			

3

주차

LEVEL 3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요일	회차	본책 페이지	학습 체크		
			1st	2nd	3rd
월	13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P.090			
화	14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P.098			
수	15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P.106			
목	16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P.114			
금	17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P.122			
토	18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P.130			

4

주차

LEVEL 4
최종 점검
모의고사

요일	회차	본책 페이지	학습 체크		
			1st	2nd	3rd
월	19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P.140			
화	20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P.146			
수	21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P.154			
목	22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P.160			
금	23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P.168			
토	24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P.176			

5

주차

별책
문법노트
PLUS

요일	단원	별책 페이지	학습 체크		
			1st	2nd	3rd
월	① 음운과 음운의 변동	P.004			
화	② 형태소와 단어	P.022			
수	③ 문장의 이해	P.042			
목	④ 문법 요소	P.060			
금	⑤ 의미 & 국어의 역사	P.074			

문	법	백	제
P	L	U	S ⁺

WEEK

1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어의 음절은 단독으로 발음되는 최소의 소리 단위로, 현대 국어에서 음절의 구성 방식은 ‘중성’, ‘초성 + 중성’, ‘중성 + 종성’, ‘초성 + 중성 + 종성’의 네 가지가 있다. 하나의 음절은 중성에서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ㅚ, ㅝ, ㅞ, ㅟ, ㅠ’ 중 1개 또는 단모음에 반모음이 결합한 이중 모음 1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또한 하나의 음절을 이룰 때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중성과 달리 초성과 종성에는 자음이 각각 0개 혹은 1개 나타날 수 있다. 모음은 단독으로 발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음은 단독으로 발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음만으로 하나의 음절을 이루거나, 모음에 자음이 붙어 음절을 이루게 된다.

다음으로 국어의 음절 구성 방식과 관련된 몇 가지 제약을 살펴보자. 첫째, ㉠자음 ‘ㅇ’은 초성 자리에 올 수 없고 종성에만 올 수 있다. ‘중성’이나 ‘중성 + 종성’으로 구성된 음절의 경우 표기상으로는 초성 자리에 ‘ㅇ’이 나타나지만 이는 형식적으로 쓰인 것일 뿐, 자음 ‘ㅇ’이라고 할 수 없다. 가령 ‘아이’에서 초성 자리에 쓰인 ‘ㅇ’은 발음되지 않고, 모음 ‘ㅏ’와 ‘ㅣ’만 각각 단독으로 발음된다. 둘째, 음절의 종성 자리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자음만 올 수 있다. 즉, ㉡중성에서 비음과 유음을 제외한 다른 자음들은 모두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잎, 낫, 뱀’은 각각 [입], [낫], [뱀]으로 발음된다. 셋째, 경구개음 ‘ㅈ, ㅉ, ㅊ’ 뒤에는 이중 모음 ‘ㅑ, ㅓ, ㅕ, ㅗ, ㅛ, ㅜ, ㅠ’가 올 수 없다. 따라서 ‘자, 저, 죠, 쥬’는 각각 [자, 저, 조, 주]로 발음된다. 한편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음절 수의 변화가 동반되기도 하는데, 이는 모음이 탈락하거나 축약하면서 음절의 수가 줄어든 것과 관련된다.

0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밝혀[발켜]’에서 ‘발’과 ‘켜’는 각각 하나의 음절에 해당한다.
- ② ‘영[영]’은 이중 모음에 자음 1개가 붙은 ‘중성 + 종성’의 음절 구성 방식에 해당한다.
- ③ ‘가져[가저]’에서 두 음절은 모두 초성에 자음 1개와 중성에 단모음 1개로 이루어져 있다.
- ④ ‘건너- + -어서’에서 한 음절이 줄어 ‘건너서[건너서]’가 된 것은 모음이 탈락한 것과 관련된다.
- ⑤ ‘사이’에서 한 음절이 줄어 ‘새[새]’가 된 것은 두 단모음이 하나의 이중 모음으로 축약된 것과 관련된다.

02. ㉠과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보기>와 관련지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가) 최소 대립쌍이란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한다. 그런데 자음 ‘ㅇ’과는 달리 ‘ㅎ’은 음절의 초성에만 올 수 있고, 음절의 종성에는 올 수 없다.

(나) 음절의 종성에는 하나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으므로, 겹받침의 경우에는 자음중 하나가 탈락한다.

- ① ‘영[영]’은 ㉠에 해당하는 예로, (가)에 따라 ‘형[형]’과 최소 대립쌍을 이룬다.
- ② ‘종이[종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가)에 따라 ‘종아[조:아]’와 달리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발음된다.
- ③ ‘닭는 → [당느]’은 ㉡에 해당하는 예로,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옳지 → [올치]’는 ㉡에 해당하는 예로,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⑤ ‘없다 → [업:따]’는 ㉡에 해당하는 예로,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빠른 정답 찾기	01	02	03	04	05
	③	⑤	③	②	⑤

▶ 01 ③

정답풀이

'지구가 돌다.'와 '주희가 운동장을 돌다.'의 '돌다'는 모두 '움직임'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지구가 돌다.'의 '돌다'는 주어만 필요로 하는 자동사이고, '주희가 운동장을 돌다.'의 '돌다'는 주어뿐만 아니라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에 해당하지만, 전자와 후자 모두 '돌다'의 품사는 동사이다.

▶ 이 선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자료>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단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휘적 의미가 아니라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로 나누어지는 부류(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대상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갈래)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따라서 '지구가 돌다.'와 '주희가 운동장을 돌다.'에서 쓰인 '돌다'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에 해당해!!

오답풀이

- ① <대화 2>를 통해 '밝다'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인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지에 따라 동사와 형용사로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이 밝다.'의 '밝다'는 '불빛 따위가 환하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형용사이고, '날이 밝는다.'의 '밝다'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라는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동사이다. 따라서 '밝다'는 의미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자료>에서 조사는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고 했다. 따라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가', '를'은 조사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품사로 묶을 수 있다.
- ④ '철수가 밥을 먹다.'에서 '철수'와 '밥'은 형태가 변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며, 의미적으로는 사람, 사물, 장소, 상태 등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명사로 묶을 수 있다. 그런데 '먹다'는 '먹고, 먹으니, 먹는'처럼 형태가 변하고,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며, 의미적으로는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동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사인 '철수'와 '밥'은 동사인 '먹다'와 구분된다.
- ⑤ '나, 사과, 하나'는 각각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하는 말,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며 명사, 대명사, 수사에 해당하는데 이는 의미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한 것이다. 이는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모두 불변어에,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모두 체언에 해당하므로, '나, 사과, 하나'는 형태와 기능을 기준으로 품사를 구분할 수 없다.

👉 문법 개념 탐기

- **품사**: 단어를 문법적 성질(형태, 기능, 의미)의 공통성에 따라 나눈 갈래
 - **형태**: 단어의 형태 변화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뉨
 - **기능**: 한 단어가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들과 맺는 문법적인 관계에 따라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으로 나뉨
 - **의미**: 단어들이 분류된 갈래 전체의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로 나뉨

▶ 02 ⑤

정답풀이

㉠의 '한바탕'은 격 조사가 붙을 수 없으며, 서술어 '웃었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명사가 아닌 부사에 해당한다.

▶ <보기 1>을 참고하면 명사는 격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고 했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 그리고 뒷글에서 부사 '매우'에 대한 설명으로, 형태가 변하지 않고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를 꾸민다고 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한바탕'도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품사를 판단해 볼 수 있겠지?

오답풀이

- ① ㉠의 '오늘'은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했지만 형태는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고, 서술어로 기능하는 명사이다.
- ▶ 조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속하지만, 국어의 서술격 조사 '이다'는 다른 조사들과 달리 마치 용언처럼 활용을 한다는 특징이 있어 따라서 '오늘 이니?'에서 활용형이 쓰인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자체는 활용하지 않아 선지를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이져! 참고로 체언이 서술격 조사와 결합하면 문장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두자!
- ② ㉡의 '새'는 격 조사가 붙을 수 없으며, 체언인 '웃'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명사가 아닌 관형사에 해당한다.
- ③ ㉢의 '만큼'은 '먹고 싶은'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지만, 격 조사가 결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먹고 싶은 만큼을 먹어야'와 같이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만큼', '것', '뿐' 등은 문장에서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로 이들을 의존 명사라 한다.
- ④ ㉤의 '이'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고, 뒤에 오는 구체적인 지시 대상인 '분'을 한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어로 품사는 관형사에 해당한다. 또한 ㉤에서 관형어 '훌륭한'은 '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체언인 '분'을 수식한 것이다. 따라서 ㉤의 '이'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문장에서 주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명사가 아니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문법 개념 탐기

-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 **대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해 가리키는 말
- **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말
- **관형사**: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뜻을 꾸며주는 말
- **부사**: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말의 뜻을 꾸며주는 말
- **감탄사**: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느낌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말
- **조사**: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격 조사)하거나 의미를 추가(보조사)하는 말
- **동사**: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 **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학습 Check 1회 2회 3회

 문항	개념 확인	알면 Che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나의 책 Check! PAGE	선지나 <보기>를 활용하여 문법을 다지자! ● 선지나 <보기>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여, 내가 몰랐거나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개념을 정리해 보세요.
01	자동사 타동사 품사 분류 기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2	불변어 가변어 체언 수식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3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ㅎ' 탈락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4	서술절로 안긴문장 명사절로 안긴문장 관형절로 안긴문장 부사절로 안긴문장 인용절로 안긴문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5	중의성 어휘적 중의성 문장의 구조적 중의성 상황 맥락에 의한 중의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1
주
차
- 2
- 3
- 4

문	법	백	제
P	L	U	S ⁺

WEEK

2

실전 대비
모의고사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어는 짜임새에 따라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로 나뉜다. 합성어와 파생어는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해 구별할 수 있는데, 단어 형성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결합되는 구성 요소에 접사가 있으면 파생어로 본다. 파생어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닌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가령, 동사 '얼다'의 어근 '얼-'에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파생어가 된 '얼음'은 명사가 된다. 또한 일부 파생어가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일 때, 그 어근이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일 때와는 달리 문장의 구조가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다.'에서 '안기다'는 '안다'의 어근 '안-'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파생어인데, '안기다'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의 구조는 '엄마가 아기를 안다.'에서처럼 '안다'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 구조와 차이가 있다. 또한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약도 있다. 사동이나 피동 접미사와 달리 명사 파생 접미사 '-이'는 '놀이', '먹이' 등과 같이 어근이 자음으로 끝날 때에만 결합하며, 어근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결합이 허용되거나 결합에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척도를 나타내는 접미사 '-이'는 '길이, 높이'와 같은 파생어를 만들 수 있지만, 이와 대응되는 '*짧이, *낮이'는 만들 수 없다.

한편,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중에서 '-(으)ㅁ'은 명사형 어미 '-(으)ㅁ'과 형태가 동일하다. 이때 종성이 'ㄹ'인 어간에 명사형 어미 '-(으)ㅁ'이 결합될 때에는 '만들'과 같이 어간의 종성 'ㄹ' 옆에 '-ㅁ'의 형태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ㄷ'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단어의 경우에는 어간의 다음 음절에 명사형 어미가 '-음'의 형태로 결합한다. 이는 어간의 받침 '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로 교체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0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 헛웃음
- ㉡ 정당다
- ㉢ 가슴앓이
- ㉣ 도둑이 잡히다.
- ㉤ 바지의 길이를 재다.

- ① ㉠: 파생어 '웃음'에 접두사 '헛-'이 결합하여 다시 파생어가 되었다는 점에서 '코웃음'과 차이가 있다.
- ② ㉡: 명사인 어근이 접미사와 결합하여 형용사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가위질'과 차이가 있다.
- ③ ㉢: 자음으로 끝난 어간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파생 명사 '구이'와 차이가 있다.
- ④ ㉣: '잡히다'는 문장에서 쓰일 때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잡다'와 차이가 있다.
- ⑤ ㉤: '길이'에 대응하는 '*짧이'를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길이 보전하다.'의 '길이'와 품사상 차이가 있다.

02. <보기>는 [A]를 바탕으로 진행된 학습 활동이다. ㉠과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책을 만들'에서 '만들'은 ㉠'ㄹ'로 끝나는 어간에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한 것이고, '빠르게 걸음'에서 '걸음'은 '걷다'가 ㉡'ㄷ' 불규칙 활용을 하여 어간 받침 'ㄷ'이 'ㄹ'로 바뀐 것으로,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사형 어미 '-(으)ㅁ'과 명사 파생 접미사 '-(으)ㅁ'은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나 형용사는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며 서술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학 생: 이제 왜 '만들'과 '걸음'에서 명사형 어미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결합했는지 알겠어요.

- ① ㉠: 만찬회를 베풀.
- ㉡: 가슴에 이 름 표를 달음.
- ② ㉠: 나의 행복한 삶.
- ㉡: 아기가 젖병을 물음.
- ③ ㉠: 머리를 흔들.
- ㉡: 음악을 크게 들음.
- ④ ㉠: 얼음이 꽁꽁 얼.
- ㉡: 뼈꾸기가 슬피 울음.
- ⑤ ㉠: 수업 시간에 잠깐 쉼.
- ㉡: 가슴 속에 비밀을 묻음.

▶ 03 ③

정답풀이

(가)는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연음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웃음'의 경우 [우슴]으로 발음하여 앞 음절의 끝소리인 'ㅌ'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그대로 연음하여 발음한다.

(나)는 앞 음절이 겹받침으로 끝나고,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때 겹받침 중 뒤의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겹받침의 연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앉아'의 경우 [안자]로 발음하여 앞 음절의 끝소리인 'ㄹ' 중 뒤의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고 있다.

(다)는 앞 음절의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결합할 때에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연음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결맞'의 경우 [거똥]으로 발음하는데, 명사 '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맞'이 결합하였으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결'의 받침 'ㄷ'이 'ㄷ'으로 바뀐 뒤 연음하여 발음한다.

오답풀이

- ① '날은'은 'ㅎ' 탈락이 적용되어 [나은]으로 발음되므로 (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닭을'은 [달글]로 발음되므로 (나)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맨입'의 경우 'ㄴ' 첨가가 일어나 [맨닙]으로 발음되므로 (다)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뉘이다'는 앞 음절의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의 초성으로 연음되어 [더뉘이다]로 발음되므로 (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깎아'는 겹받침이 아니라 쌍받침이 쓰였으므로 쌍받침 자체가 연음되어 [까까]로 발음되므로 (나)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젓머미'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 뒤 연음되어 [저더머미]로 발음되므로 (다)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 ④ '꽃을'은 앞 음절의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의 초성으로 연음되어 [꼬출]로 발음되므로 (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을어'는 앞 음절의 겹받침 중 뒤의 것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의 초성으로 연음되어 [을퍼]로 발음되므로 (나)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그러나 '숨이불'의 경우 'ㄴ' 첨가가 일어나 [숨:니불]로 발음되므로 (다)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낮이'는 앞 음절의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의 초성으로 연음되어 [나지]로 발음되므로 (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그런데 '않은'은 모음 어미 앞에서 'ㅎ' 탈락이 일어나 [아는]으로 발음되므로 (나)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술이다'의 경우에는 '이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지만, 구개음화가 일어나 '술'의 'ㄷ'이 다음 음절로 연음되지 않고 'ㅌ'으로 발음되므로 (다)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 문법 개념 탐기

- **연음**: 앞 음절의 끝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나는 소리
- **'ㅎ' 탈락**: 'ㅎ'으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하는 현상
- **'ㄴ' 첨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ㅇ'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겹받침)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

▶ 04 ④

정답풀이

서술어가 타동사인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면, 주동문의 목적어는 사동문에서도 그대로 목적어로 나타난다. '안-기다'가 쓰인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아기를 안기다.'를 '안다'①이 쓰인 문장으로 바꾸면 '어머니가 아기를 안다.'가 되므로 '안-기다'가 쓰인 문장의 목적어는 '안다'①에서도 목적어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 첫째, 사동문은 원칙적으로 모두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 문장이야. 둘째, 주동문과 달리 사동문에서는 사동주가 주어로 새롭게 도입돼. 셋째,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로 대응돼. 넷째, 주동문의 서술어가 사동문에서는 사동 접미사 '-이/-히/-리/-기/-우/-구/-추' 또는 '-시키(다)'가 결합한 사동사나 '-게 하다'가 결합한 사동 표현으로 바뀌어서 나타나지!**

오답풀이

- ① 피동사 '안-기다'이 사용된 문장은 피동문이다. 따라서 <보기>의 설명에 따라, '안-기다'이 쓰인 문장의 주어는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질 것이다.
- ② '안-기다'이 쓰인 문장 '동생이 어머니에게 안겼다.'를 '안다'①이 쓰인 문장으로 바꾸면 '어머니가 동생을 안다.'가 되므로 '안-기다'이 쓰인 문장의 부사어 '어머니에게'는 '안다'①이 쓰인 문장에서 주어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사동사 '안-기다'가 사용된 문장은 사동문이다. 따라서 <보기>의 설명에 따라, '안-기다'가 쓰인 문장의 주어는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할 것이다.
- ⑤ '안-기다'는 '안다'①의 피동사이고, '안-기다'는 '안다'①의 사동사이므로, '안-기다'에 쓰인 '-기-'는 피동사를 형성하는 접미사이고, '안-기다'에 쓰인 '-기-'는 사동사를 형성하는 접미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문법 개념 탐기

- **주동문**: 주어가 행동이나 동작을 스스로 하는 것을 표현한 문장
- **사동문**: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을 표현한 문장
- **사동문에는 주어가 직접 참여하여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표현한 직접 사동문과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켜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표현한 간접 사동문이 있어! 일반적으로 사동 접미사가 결합된 사동사가 쓰인 사동문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두 가지 의미로 모두 해석되지만, '-게 하다'를 활용한 사동문은 간접 사동의 의미로만 해석돼.**
- **능동문**: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을 표현한 문장
- **피동문**: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
-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 첫째, 능동사가 피동사로 바뀔 때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타동사가 자동사로 바뀌어서 나타나. 둘째,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 주어로 대응돼. 셋째,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로 대응돼. 넷째, 능동문의 서술어가 피동문에서는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가 결합한 피동사나 '-아/-어지다'가 결합한 피동 표현으로 바뀌어서 나타나지!**

- 1
- 2 주차
- 3
- 4

문	법	백	제
P	L	U	S ⁺

WEEK

3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어의 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음운 현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된소리되기는 환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ㅂ, ㄷ, ㄱ’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이다. 이 된소리되기는 예외 없이 일어나는 필수적인 현상이다. 이때 ‘ㅂ, ㄷ, ㄱ’은 받음을 의미하므로, 음운 변동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ㅂ, ㄷ, ㄱ’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ㅂ, ㄷ, ㄱ’이 아닌 자음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ㅂ, ㄷ, ㄱ’ 중 하나로 바뀌거나, 겹받침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고 남은 자음이 ‘ㅂ, ㄷ, ㄱ’ 중 하나일 경우에도 그 뒤에 예사소리가 오면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또한 겹받침 중 뒤의 자음이 ‘ㅂ, ㄷ, ㄱ’ 중 하나일 때에는 이것에 의해 먼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후, 탈락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둘째, ‘ㄹ, ㄴ’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이다. 가령 ‘감다→[감:따]’, ‘안다→[안:따]’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되기가 그것이다. 이 된소리되기는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라는 형태소와 관련된 조건이 덧붙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접미사 ‘-기-’가 결합한 ‘감기다→[감기다]’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한자어에서 ‘ㄹ’로 끝나는 말 뒤에서 ‘ㄷ, ㅅ, ㅈ’이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이다. ‘물질(物質)→[물질], 일생(一生)→[일쌩]’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넷째,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이다. 이 된소리되기는 체언의 첫소리에 적용되는 것으로, 쉬지 않고 이어서 발음할 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만날 사람’을 한 번에 발음하면 ‘[만날쌩사람]’이 된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 합성어가 될 때,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이다. 이 된소리되기는 사잇소리 현상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로, 주어진 환경이 동일하더라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가령 ‘산길→[산길]’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만, ‘손발→[손발]’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01. 윗글의 관점에서 <보기>의 (가)~(마)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가) 국수[국쑤], 닭개[닭개], 있던[일뎌], 닭도[닥또]
- (나) ㄱ. 밥을 담대[담:따], 신발을 신고[신고:신꼬]
 ㄴ. 이 반지는 금도[금도] 은도[은도] 아니다.
 신발을 신기다[신기다].
- (다) ㄱ. 할 것[할깁], 갈 길[갈깁]
 ㄴ. 널 사랑해[널사랑해]
- (라) ㄱ. 갈등(葛藤)[갈똥], 일시(一時)[일씨], 열정(熱情)[열짱]
 ㄴ. 물건(物件)[물건], 출발(出發)[출발]
- (마) 넓게[날개], 읽고[일꼬]

- ① (가): 한 단어, 어간과 어미의 결합, 체언과 조사의 결합 등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ㅂ, ㄷ, ㄱ’ 뒤에서 예사소리는 예외 없이 된소리로 바뀌는군.
- ② (나):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 아닌, 체언과 조사의 결합, 어근과 접사의 결합에서는 앞말이 ‘ㅂ, ㄴ’으로 끝나더라도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지 않는군.
- ③ (다): 쉬지 않고 이어서 발음할 경우에도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결합한 말이 문장에서 목적으로 쓰일 때에는 뒤에 오는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바뀌지 않는군.
- ④ (라): 한자어에서 ‘ㄹ’로 끝나는 말 뒤에 예사소리 ‘ㄱ, ㅂ’이 올 때에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군.
- ⑤ (마): 겹받침 중 ‘ㅂ, ㄷ, ㄱ’에 해당하는 자음이 뒤에 오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바꾼 후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나는군.

학습 Check 1회 2회 3회

 문항	개념 확인	알면 Che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나의 책 Check! PAGE	선지나 <보기>를 활용하여 문법을 다지자! ● 선지나 <보기>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여, 내가 몰랐거나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개념을 정리해 보세요.
01	된소리되기	<input type="checkbox"/>		
02	사잇소리 현상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3	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의 유형 비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4	의존 명사 '데' 어미 '-데' 어미 '-ㄴ데/-는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5	중세 국어의 상대 높임법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1
- 2
- 3
주
차
- 4

문	법	백	제
P	L	U	S ⁺

WEEK

4

최종 점검
모의고사

01.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탈락이나 축약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음운의 수가 줄어든다.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때, 한 자음만 남고 나머지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이나,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음운의 개수는 변하지 않으면서 음절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보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면서 음절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 | | | | |
|---|-----|----|---------------|
| | ㉠ | ㉡ | ㉢ |
| ① | 넓고 | 뚫고 | 크- + -어서 → 커서 |
| ② | 닭은 | 닭지 | 오- + -아 → 와 |
| ③ | 여덟만 | 각하 | 기- + -어 → 겨 |
| ④ | 많다 | 역할 | 바꾸- + -어 → 바뀌 |
| ⑤ | 살는 | 않는 | 가- + -아서 → 가서 |

02.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영희가 동수와 만났음이 밝혀졌다.
 ㉡ 광호는 동생이 어제 산 책을 읽었다.
 ㉢ 나는 철호가 밥을 먹은 사실을 몰랐다.
 ㉣ 아침에 사람들은 일터로 가기에 바쁘다.
 ㉤ 농부는 나무가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었다.

- ① ㉠의 안긴문장 속에는 부사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다.
- ② ㉠의 안은문장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지만, ㉣의 안은문장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 ③ ㉡의 안긴문장 속에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
- ④ ㉢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다르지만, ㉣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같다.
- ⑤ ㉣와 ㉤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 모두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03. ㉠~㉣에서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의성이 있는 문장	수정한 문장
㉠	배가 정말 크다.	우리가 타고 갈 배가 정말 크다.
㉡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었다.	어제 읽은 책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썼다.
㉢	할머니는 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언니보다 할머니가 나를 더 사랑하신다.
㉣	광호는 영수와 철수를 불렀다.	광호와 영수는 함께 철수를 불렀다.
㉤	철수는 넥타이를 매고 있다.	철수는 지금 넥타이를 매는 중이다.

- ① ㉠: '배'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한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배'를 수식하는 관형어를 추가한다.
- ② ㉡: '좋아하는'이 수식하는 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작가'만 수식하도록 주어를 추가한다.
- ③ ㉢: '언니'와 비교하는 대상이 '할머니'인지 '나'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할머니'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언니보다'의 위치를 이동한다.
- ④ ㉣: 부르는 행위를 '광호' 혼자 한 것인지, '광호'와 '영수'가 같이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동반을 의미하는 부사어를 추가한다.
- ⑤ ㉤: '-고 있다'로 인해 동작의 진행과 상태의 지속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동작의 진행만 의미하는 '-는 중이다'로 교체한다.

문	법	백	제
P	L	U	S ⁺

PART

1

음운과 음운의 변동

1 자음과 모음

1. 자음(19개): 소리 낼 때, 목 안 또는 입 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양순음 (두 입술)	치조음 (윗잇몸-혀끝)	경구개음 (센입천장-혓바닥)	연구개음 (여린입천장-혀뒤)	후두음 (목청)
무성음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평음)	ㅂ	ㄷ		ㄱ	
		된소리(경음)	ㅃ	ㄸ		ㄲ	
		거센소리(격음)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평음)			ㅈ		
		된소리(경음)			ㅉ		
		거센소리(격음)			ㅊ		
마찰음	예사소리(평음)		ㅅ			ㅎ	
	된소리(경음)		ㅆ				
유성음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 파열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
- ★ 파찰음: 일단 파열시켰다가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 ★ 마찰음: 입 안의 공간을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 ★ 비음: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 ★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 보내면서 내는 소리

2. 모음(21개): 소리 낼 때,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

① 단모음(10개): 소리 낼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

혀의 위치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 모양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혀의 높이	고모음	ㅣ	ㅍ	ㅡ	ㅍ
	중모음	ㅔ	ㅍ	ㅑ	ㅑ
	저모음	ㅚ		ㅓ	

- ★ 전설 모음: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놓이는 모음
- ★ 후설 모음: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놓이는 모음
- ★ 고모음: 혀의 높이가 높음
- ★ 중모음: 혀의 높이가 중간
- ★ 저모음: 혀의 높이가 낮음
- ★ 평순 모음: 입술을 오므리지 않고 평평하게 하고 발음
- ★ 원순 모음: 입술을 둥그렇게 오므리고 발음

② 이중 모음(11개): 소리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는 모음

'ㅣ'계 이중 모음	ㅑ, ㅑ, ㅑ, ㅑ, ㅑ, ㅑ
'ㅓ/ㅑ'계 이중 모음	ㅑ, ㅑ, ㅑ, ㅑ
'ㅑ'는 앞의 'ㅡ'가 반모음인지, 뒤의 'ㅣ'가 반모음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음	ㅑ

음운과 음운의 변동 나만의 오답 노트 정리

시험명	본책 PAGE	체크하기
01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1번	P.012	○ △ ×
01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2번	P.012	○ △ ×
02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3번	P.019	○ △ ×
03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1번	P.024	○ △ ×
04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3번	P.031	○ △ ×
06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1번	P.042	○ △ ×
06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2번	P.042	○ △ ×
07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03번	P.051	○ △ ×
08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03번	P.057	○ △ ×
09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03번	P.063	○ △ ×
10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03번	P.069	○ △ ×
11회차 실전 대비 모의고사 03번	P.075	○ △ ×

시험명	본책 PAGE	체크하기
13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01번	P.090	○ △ ×
13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02번	P.091	○ △ ×
14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03번	P.099	○ △ ×
16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03번	P.115	○ △ ×
17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03번	P.123	○ △ ×
18회차 고난도 함정 모의고사 03번	P.131	○ △ ×
19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01번	P.140	○ △ ×
21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01번	P.154	○ △ ×
22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01번	P.160	○ △ ×
22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02번	P.160	○ △ ×
23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01번	P.168	○ △ ×
24회차 최종 점검 모의고사 01번	P.176	○ △ ×

○ : 개념도 명확히 알고, 정답도 맞힌 경우 △ : 개념은 명확하게 모르지만, 정답은 맞힌 경우 × : 개념도 명확하게 모르고, 정답도 틀린 경우

01회차 기본기 다지기 모의고사 01번

→ 본책 P.012 지문 참고하기

0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밭헤[밭켜]에서 '밭'과 '켜'는 각각 하나의 음절에 해당한다.
- ② '향[향]은 이중 모음에 자음 1개가 붙은 '중성 + 종성'의 음절 구성 방식에 해당한다.
- ③ '가져[가저]에서 두 음절은 모두 초성에 자음 1개와 중성에 단모음 1개로 이루어져 있다.
- ④ '건너- + -어서에서 한 음절이 줄어 '건너서[건너서]가 된 것은 모음이 탈락한 것과 관련된다.
- ⑤ '사이에서 한 음절이 줄어 '새[새]가 된 것은 두 단모음이 하나의 이중 모음으로 축약된 것과 관련된다.